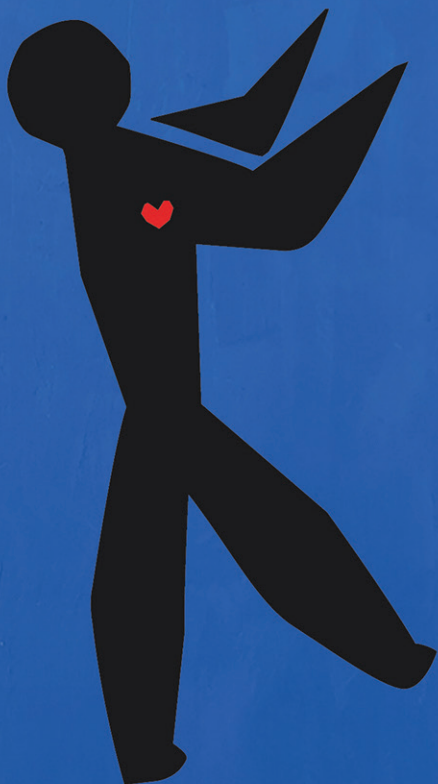


100주년기념교회

2021년 대림절 묵상집

선물



대림절 묵상집, 선물

2021년 11월 15일 발행

펴낸이 김광옥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디자인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100주년기념교회

2021년 대림절 묵상집

선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기독교의 최고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절기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독교의 출발, 우리 구원의 출발과도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에 어두움이 깊은 대로 깊은 때였고,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온 삶이 싱크홀(sink hole_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집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가다 보면, 묵상집이라는 작은 선물보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한 선물이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대림절에

찬양제

대림절 첫째 주

선물에 대한 예언 : 메시아

11월 29일(월)	창 3:15, 갈 4:4-5	때가 차매
11월 30일(화)	출 12:21-28	피를 보시면 넘으시고
12월 1일(수)	사 9:1-7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12월 2일(목)	사 53:1-6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월 3일(금)	미 5:2-5a, 마2:1-6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12월 4일(토)	스 13:7-9	내 이름을 부르라니

대림절 둘째 주

또 다른 선물 : 보혜사

12월 6일(월)	눅 11:9-13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12월 7일(화)	요 14:25-27	나의 평안을 주노라
12월 8일(수)	행 1:1-8	내 증인이 되리라
12월 9일(목)	롬 8:14-17	아빠 아버지
12월 10일(금)	갈 5:22-24	오직 성령의 열매는
12월 11일(토)	엡 1:17-19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림절 셋째 주

장차 올 선물 : 마라나타

12월 13일(월)	요 6:38-40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2월 14일(화)	요 14:1-3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2월 15일(수)	눅 21:34-36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12월 16일(목)	히 12:1-2	예수를 바라보자
12월 17일(금)	딤후 4:7-8	달려갈 길을 마치고
12월 18일(토)	벧후 3:8-13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대림절 넷째 주

지금 함께하는 선물 : 임마누엘

12월 20일(월)	마 1:18-2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2월 21일(화)	눅 1:30-38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2월 22일(수)	눅 2:1-7	있을 곳이 없음이라
12월 23일(목)	눅 2:8-14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
12월 24일(금)	눅 2:21-24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림절 첫째 주

선물에 대한 예언

메시아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담긴 크신 사랑과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경본문

¹⁵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⁵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상글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실낙원 하게 한 뱀(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소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구약의 시대는 마침표를 찍고 신약의 시대가 펼쳐졌으며,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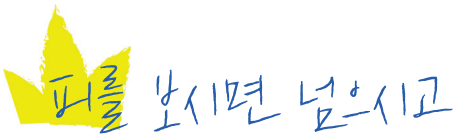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 바를 모르는 인류와 상처투성이의 사회,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정, 새로워져야 할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각자에게 '때가 차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오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과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 이전과 다른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질문

- 1 주님의 오심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에서부터 약속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오래 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때를 맞추어 역사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경본문

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 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л 것이니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라 **26**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나 하거든 **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 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묵상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 년에 세 절기, 무교절(유월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절기가 모두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없다면, 다른 절기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바로 왕을 징계하여, 애굽에 각종 재앙을 내리

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문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이 낯선 의식(儀式)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므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이 있어도, 이방인이 있어도 죽음의 권세는 넘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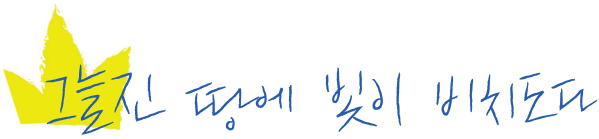
대림절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가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 문 인방과 문설주와 죄와 허물 많은 그들을 넘어가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월(踰越), 패스오버(pass-over)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재출발이 되기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품음으로 오늘이 진정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당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넘어가 주셨습니까?
- ② 주님의 오심으로 당신의 무엇을 넘어가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사야 9:1-2, 6-7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성경본문

¹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²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⁶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⁷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묵상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_참 통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칭이 ‘기묘자와 모사(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유한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평강의 왕(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고통받던 사람들이었고,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1절 상). 주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의 흑암이 있을 수 없고, 흑암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열두 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과 흑암과 눈물의 빵을 먹던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내신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당했던 절망과 고통은,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었습니다. 혹 지금 삶의 자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와도 같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 인간관계에서, 언제 끝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절망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놀라우신 조연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뵈는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으로, 참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맞이하십시오.

기도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의 터널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흑암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고통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흑암이 광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삶이 꽃이 되고 인생이 꽃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일몰과 일출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흑암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주님은 기모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② 주님을 받아들이면 고통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흑암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고통이나 흑암이 걷어졌습니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성경본문

¹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²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³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⁴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⁵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⁶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묵상글

이사야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세밀한 정물화를 그리듯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무라면 그 크기가 수십 미터나 되는 우람한 나무이거나, 수백 년 동안 고고함과 기품을 잃지 않는 나무이거나, 대나무처럼 그 곁에 사람들이 옷매무새를 고치게 되는 그런 나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는 '연한 순 어린 묘목'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무일지라도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에 있어서 머지않아 큰 나무로 자랄 것이 확실하면 좋을 텐데, 마른 땅에 자라며 게다가 뿌리가 아주 작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제대로 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들로 방 한 칸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고, 목수의 아들

로 자라셨습니다. 게다가 말씨도 갈릴리의 투박한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보아도 메시아로 인정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는 눈에 띄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견을 수 없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범법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존재였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의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들을 다 합한 것과 비교해서 억만 배의 억만 배보다 더 존귀하시며, 세상의 모든 강한 것을 다 합하더라도 주님의 한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강하신 분이심에도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모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심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며,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주님의 찢리심과 상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언제 확신하였습니까? 지금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고 온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 ② 양은 시력도 몹시 나쁘고, 자신을 지킬만한 자구책이 없음에도 몹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당신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헬 작은 골

성경본문

² 베들레헬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³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a}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¹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³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⁵ 이르되 유대 베들레헬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⁶ 또 유대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묵상글

미가의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가장 또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헬'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태어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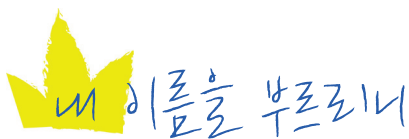
루살렘 왕궁으로 직행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예루살렘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을 불러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이 말씀, 미가 5:2절을 찾아서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국의 심장 로마나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빵집)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을이었습니다. 혹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게만 여겨지십니까? 또 경제적으로, 건강 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미래가 암울하게만 보이고, 깊은 터널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어 들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며, 우리 삶의 시간이 좌절과 절망에서 용기와 소망, 평화의 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존재였었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소망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에 잇대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미가가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말씀을 전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까?
- ②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선입견으로 행한 일과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본문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यो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묵상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의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릴 것이며, 열린 샘이 되실 것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게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는 말씀은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작은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는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과 교류하려고 하고, 작게 여겨지는 사람은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는 분(찬 563장)’이시고,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생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대림절은 소망이 됩니다.

기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듯,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대림절이 우리의 영적인 절기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지나온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인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❷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폐부 깊이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

또 다른 선물

보내시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해 봅시다.



누가복음 11:9-13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성경본문

⁹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¹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¹¹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¹²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¹³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묵상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올린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피조물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면 생선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 먹지 않고, 위험하기까지 한 물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구워먹을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에 뱀이나 구워 먹어라”고 말할 아버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몸을 동그랗게 말면 달걀처럼 생긴 전갈을 던져주며 그것을 달걀이

라고 생각하고 살아 먹으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유한하기 짝이 없는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는 진정한 성탄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새로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른 부모는 가진 것을 모두,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존재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으며,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 ②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 가장 소중한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성경본문

²⁵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²⁶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²⁷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눈으로 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께서도 불안에 떨어야만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평안’, ‘평강’,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번역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평안인 것 같으나 결코 참된 평안일 수가 없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여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란 의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을 분이 어떻게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

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의 몸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실 때, 그분의 몸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세움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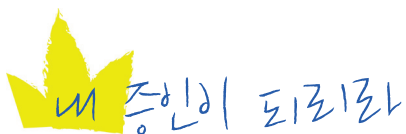
그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절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 우리 각자의 평안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때때로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이 나에게 참된 평화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주님의 평안만이 참 평안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영원히 약속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사람들은 세상(물질이나 힘)의 평안이나 사람이 주는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소망이 되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 ②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성경본문

¹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²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³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⁴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⁶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⁷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⁸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고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소개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또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각자의 행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집이 갈릴리 지방으로 자기들의 스승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

약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강림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는 떠나야 했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에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과 떠나야 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언어'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시는 주님께 초점 맞추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데오빌로'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언전(言傳)'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사는 '행전(行傳)'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우리 모두는 '데오빌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느낀 때는 언제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 ②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성경본문

¹⁴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¹⁵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¹⁶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¹⁷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묵상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다른(불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가슴을 쓸어내렸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인과 노예는 부림(채찍)과 복종(두려움)의 관계이지만, 아버지와 양자는 사랑과 감사의 관계입니다. 양자는 주인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양자가 되었다면, 자신을 양자 삼아주신 집안의 가풍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양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마

다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각인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기도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양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욕망의 인도를 받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주 또렷하게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❷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경본문

²²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²³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²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묵상글

포도송이가 영글어갈 때, 포도알 한 알이 다 익은 다음에 또 한 알이 익고 하는 방법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포도알 전체가 조금씩 익어가서 나중에 완전히 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포도 한 송이’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모두 아홉 개의 단어로 표현하지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며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치 여러 개의 포도알이 달린 ‘포도 한 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아홉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제품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제품은 공장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생명체를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태의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라는 생명체를 통해서 생기고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 그리고 햇빛과 비,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열

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깊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좋고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열매가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 아홉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서 당신의 삶에 좀 더 잘 영글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② 성령의 열매를 더 잘 맺는 길은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게 되는 육체의 욕망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17-19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성경본문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묵상글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몸은 영어(圜圖)의 상태이지만, 그의 심령은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총명함이나 영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총명하고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이 노력함에도 우리보다 덜 누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절기로 가꾸어 가십시오.

기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총명한 사람이 많음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그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 ②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누리게 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대림절 셋째 주

장차 올 선물

마리아나

이 평에 재림 심판의 주를 임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대시 인실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38-40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경본문

³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³⁹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빵(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파편이 아니라 진리의 온 말씀(성경 전체)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얹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악기를 향한 뜻은 좋은 연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향한 뜻은 좋은 이동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 뜻의 충실한 통로가 될 때 그 가치를 발하게 됩니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의 통로가 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목적 삼으십시오.

기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만든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즐거워했던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갉아먹거나 우리의 삶과 믿음을 허무는 것이 되었던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자신이 계획한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변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②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경본문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묵상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 짙은 근심의 구름이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근심은 떠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당신이 가서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영원한 집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에덴동산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나무를 심고 짐승을 길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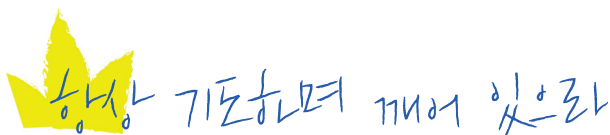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신앙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우리의 겉모습은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근심이 가득하고 주님을 믿기보다 내가 가진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믿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확인해 보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누리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지금 당신을 가장 근심 속으로 빠뜨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때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 ②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 중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경본문

³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³⁵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³⁶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묵상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숨을 언제 쉬게 될지, 어디서 쉬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쉬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내어 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지막 숨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은 윤리적으로 수준 낮은 생활만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취함'은 의미 없는 무엇인가에 중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목적 삼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각자의 종말,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 속에 함몰되어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국가고시를 몇 달 앞둔 사람은 하루에 열 시간씩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대통령이 우리를 장관으로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유혹에 함몰되어 있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읊조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이 후회와 절망이 아니라 의미와 소망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지금 당신을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머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❷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숙이시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성경본문

¹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²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묵상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무거운 것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에도 달리기 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바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야 합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서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거운 것’이라는 용어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찌른 살’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만의 몸을 갖고서는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비만증이 걸리면 영적 마라톤은 요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이 외적인 방해물이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적인 방해물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걸사람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앙의 마라톤은 속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가 누적되면 더 이상 바른 신앙의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로마가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동일합니다.

운동장에서 금을 바르게 그으려면, 먼저 멀리에 있는 한 지점을 정하고 그다음에는 땅을 보지 않고 목표로 정한 그 지점만 보고 그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뻘뻘떨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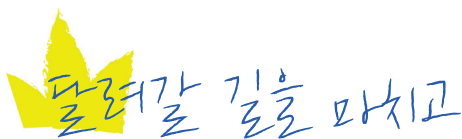
게 보일지라도 다 그어 놓고 보면 바르게 됩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는다면, 우리는 영적 경주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 나를 돋보이게 해 주는 것을 목적 삼고 가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걷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관의 무거운 것은 벗어 버리게 하시고,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죄를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지금 당신이 벗어 버려야 할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 ②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기 위해서 지금 교정해야 할 시선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본문

⁷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⁸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묵상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경쟁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악한 싸움’이라면 좀 편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마음대로 싸워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자기가 손해 보고, 다른 사람을 이익이 되게 하는 싸움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은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선한 싸움을 포기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달리던 사람이 후반전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 마라톤 42.195km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전력 질주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한들 그 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는 교회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의 인생을 살았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우리의 삶을 쉼 하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스승 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과 빛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오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 ② 우리 각자는 모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 후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성경본문

⁸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⁹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¹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¹¹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¹²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¹³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묵상글

며칠을 사는 하루살이의 시간과 한 달을 사는 파리나 모기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십여 년을 사는 개나 고양이의 시간과 7-80년을 사는 사람의 시간도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오만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오신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하게 행하며,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별된 삶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약속해 줍니다. 언제나 현재의 삶은 미래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있던 족대를 옮기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순간을 기대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셔서 건짐을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 ②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가꾸어 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림절 넷째 주

지금 함께하는 선물

이제
모두를
위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계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18-23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성경본문

¹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¹⁹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²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²¹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²²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²³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묵상글

유대인들은 약 일 년 동안의 약혼(정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약혼의 기간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편과 아내의 권리는 소유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여자를 두고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자를 ‘과부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약혼 기간이 끝난 후, 1~2주 동안 잔치를 열고 두 사람은 완전히 부부가 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냥 이렇게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되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

이다”라는 주의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적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마치 조그만 바가지에 바닷물을 다 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예 계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엄청난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②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로마서를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30-38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성경본문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묵상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을 찾아가서 전한 소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 그만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아기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_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낮

고 낮은 직업 가운데 하나인 목수와 약혼할 정도에 불과한 처녀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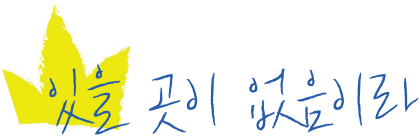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ESV 영어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_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놓아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됩니다.

기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도 놀랍지만,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 엄청난 말씀에도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놀라움을 넘어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엮음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엮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마리아는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난 삶 중에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 ②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성경본문

1 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묵상글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제국의 첫 황제가 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의 모든 나라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는 강압적이고도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기에 만삭인 마리아도 예외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로마제국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려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그 때에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거나, 또는 날짜를 당기거나 미루어서 호적령을 내렸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 전했던 미가의 예언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은 오셨지만, 주님이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집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계실 곳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주님이 계실 곳인데, 정작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국방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거나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계실 곳이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매일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호적령을 따라야 했고,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이 계실 자리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 사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로마 황제의 호적령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룬 것처럼, 세상의 법칙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 ②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셔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

누가복음 2:8-14

찬송가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성경본문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외양간 속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외양간 동굴로 달려가 정말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아기가 구원자이며, 외양간 동굴 속 구유에 누어 있는 것이 곧 이 아기가 구원자인 표적이라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더러운 외양간 동굴 속 짐승의 땀통인 구유를 침대 삼아 누어 있는 아기라면 그 아기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그 아기가 구원자 됨의 표적이라니, 그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동굴 속 구유에서 태어나심보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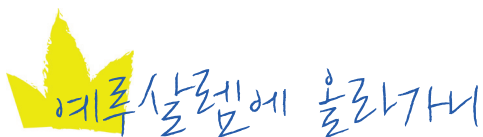
좋은 표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자연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동굴이었습니다. 칠흙 같은 어둠이 겹겹이 싸여 있는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지만 하면, 그곳은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부터 시작된 빛을 보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외양간 동굴은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심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둠 속에 계셨습니까? 욕망을 따라 사느라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동굴 외양간 구유에 있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진정한 날로 엮어질 것입니다.

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어두움이 가득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동굴 속 외양간 구유에 뉘신 이유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헤매며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욕망을 따라 사느라 역한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표적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 구유에 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강한 역설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② 외양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걷어 내야 할 어두움과 제거해야 할 역함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성경본문

²¹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²²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²³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²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묵상글

목자들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호적령 때문에, 직선거리로만 해도 약 80마일(약 128km)나 떨어진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과 일면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와서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돌아간 후에,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세주의 부모가 되었다고 큰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태어난 아기들이 거쳐야 했던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아기 예수님에게도 행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팔 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날에 아기의 이름을 짓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드리는 봉헌예식과 마리아의 정결예식도 행했습니다. 본래 정결예식의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만약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제물은 '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을 드

릴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십 분의 일 이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이처럼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빈한함,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에 비하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할례와 봉헌예식, 정결예식은 참 밋밋하게 보입니다. 좋은 신앙은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상의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하루에 한 장씩 ‘순종의 색종이’를 붙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목자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색종이를 붙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리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신앙생활 중에 기적적인 경험이 믿음과 인격 성숙에 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적인 경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②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와 같은 일상의 믿음 생활에서 당신이 얻은 영적인 유익이나 성숙은 무엇이었습니까?

